행정처분 사전통지(공시송달)

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.

2014년 5월 22일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

-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
2. 당사자

성명	주소
TRANTHANHHOA	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-1
YUZAWA TOMOYASU	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48, 4층 43호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이 제한됨
-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58.5%('13년말 기준)로 이는 방송법 제14조(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)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외국자본으로 간주됨
-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주식 8,380,000주(지분율 19.95%, '13년말 기준)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

TRANTHANHHOA와 YUZAWA TOMOYASU가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주식을 각각 20주(지분율 0.00%, '13년말 기준), 10주(지분율 0.00%, '13년말 기준)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, TRANTHANHHOA와 YUZAWA TOMOYASU는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방송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·지분의 소유자임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시정명령

- 방송법상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한 규정(방송법 제14조제2항)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(이행기한은 6개월 이내에서 방통위가 결정)

5.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

- 방송법 제14조제2항 및 제6항제2호

6. 의견 제출
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과천정부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

※ 담당 : 윤정은 (☎ 02-2110-1433, FAX : 02-2110-0136, jeyoon@kcc.go.kr)

- 제출기한 : 2014년 6월 16일까지